

행동면접 완전정복

목차

1. 행동면접이 중요한 이유 — 왜 무시하면 안 되는가
2. 행동면접은 언제 일어나는가 — 항상 평가받고 있음
3. 행동면접이 측정하는 3가지 — Soft Skills, Position Fit, Culture Fit
4. "자기소개" 완벽 구성법 — About Me Pitch
5. "그때를 말해보세요" 유형 질문 — Tell Me About a Time
6. STAR 공식 — 이야기로 만드는 답변 프레임워크
7. 프로젝트 워크스루 질문 — 이력서 너머의 진짜 실력
8. 면접관에게 할 질문 — 전략적 역질문
9. 면접 후 에티켓 — 감사 메일과 후속 조치
10. 핵심 요약 & 상담 포인트

PART 1

행동면접, 왜 중요한가

행동면접은 "부드러운 헛소리"가 아님

- 기술 면접이 합격의 ****90%****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나머지 **10%**를 무시하면 최종 탈락의 원인이 됨
- Amazon: 모든 지원자에게 **Leadership Principles** 기반 Bar Raiser 면접 실시
 - "Customer Obsession", "Invent and Simplify" 등 14개 원칙
- Uber: **문화 적합성, 과거 업무 경험** 중심의 Bar Raiser 라운드 운영
- SafeGraph(Nick의 전 직장): 화장실 포함 **모든 방에 회사 가치관 포스터** 부착
 -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를 못 하면 합격 불가능

행동면접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시점	상황	평가내용
리크루터 전화	기술 면접 전 스크리닝	기본 소통 능력, 동기
기술 면접 시작 5-10분	가벼운 대화처럼 보이는 시간	과거 프로젝트, 회사 관심도
점심 시간	면접 세팅 밖에서의 행동	자연스러운 성격, 팀 적합성
최종 면접	미래 상사/임원과의 대화	문화 적합성, 장기 비전

핵심: "행동면접"이라는 캘린더 초대 없이도, 모든 순간이 평가 대상임

주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행동면접

- 신입은 3-6개월 교육 투자가 필요한 존재임
- 기술 질문에서 시니어를 이기기는 어려움
- 대신 코칭 가능성, 열정, 학습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 행동면접에서 보이는 "성장 가능성"이 회사가 당신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됨
- X-Factor: 비슷한 실력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당신을 차별화하는 요소

"밤에 누워서 '아, 그 데이터 분석 실수를 잡아서 5만 달러 아꼈던 이야기를 왜 안 했지!'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수"

PART 2

행동면접이 측정하는 3가지

행동면접의 3대 평가 영역

Soft Skills

- **소통 능력:** 이해관계자에게 제안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가
- **협업:** 데이터사이언스는 팀 스포츠 — 함께 일할 수 있는가
- **실패 대처:** 방어적이 아닌 성장 마인드셋을 보이는가

Position Fit

- **직무 관심도:** 연봉만이 아닌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 **동기 부여:** 왜 이 팀, 이 역할에 지원했는가
- **역량 매칭:** 이전 경험이 이 포지션과 연결되는가

Culture Fit

- **가치관 일치:** 회사의 미션과 가치에 공감하는가
- **팀 분위기:** 기존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 **기업 "바이브 체크":** 조직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가

기술면접 vs 행동면접의 본질적 차이

구분	기술면접	행동면접
핵심 질문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평가 대상	코딩, SQL, 통계 역량	동기, 소통, 적응력
준비 방식	문제 풀이 연습	이야기(Story) 준비
합격 기준	정답 도출 능력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 셸든 쿠퍼(Big Bang Theory) 수준의 카리스마여도 **준비만 하면** 통과 가능함
- 행동면접은 타고난 외향성이 아니라 **준비의 깊이**가 결정함

PART 3

"자기소개" 완벽 구성법

"Tell Me About Yourself" — 3단계 구조

- ① Who You Are— 현재 나는 누구인가 (현 직장/학교, 전공, 역할)
- ② How You Got Here—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경력 경로 + 핵심 성과 1-2개)
- ③ What You Want—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 지원한 이 역할 + 이 회사)

자기소개 작성의 4대 원칙

- 1-2분 이내로 제한 —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음
 - 대부분 대학 시절부터 시작하면 적당함
- 지원 포지션과 연결 — JD의 핵심 키워드와 회사 가치를 자연스럽게 엮음
 - "그들의 언어로 말하라"
- 큰 성과 1-2개 언급 — 이력서에 있더라도 직접 강조해야 기억에 남음
- 반복 연습 — 모든 면접 시작에 나오는 질문이므로 완전히 체화해야 함

Kevin의 월스트리트 자기소개 (분석)

피치 내용

"안녕하세요, Kevin입니다. 현재 Facebook 데이터사이언티스트입니다. 2017년 Penn 졸업 후 CS, 통계,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Facebook에서는 Groups 팀 애널리틱스를 담당하며 스팸/혐오 발언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이전에는 헤지펀드에서 클릭스트림, 위성 이미지 등 대안 데이터로 주식 분석을 했습니다. 빅테크와 월스트리트 모두 경험한 결과, **금융시장에 데**

이터사이언스를 적용하는 데 더 열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핵심

-
-
-
-
-

Nick의 Google Nest 인턴십 자기소개 (분석)

피치 내용

"안녕하세요, Nick입니다! UVA 3학년이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교차점을 좋아합니다. 시스템 공학과 CS를 복수전공 중입니다. 방산업체 DS 인턴, Microsoft Payments 팀 백엔드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Nest Labs의 Data Infrastructure 팀은 제 데이터+SWE 경험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스타트업을 만들어 몇 달 만에 2,000명 사용자를 확보한 경험이 있어 **빠른 속도**를 좋아합니다."

핵심 전략

- **Who:** UVA 3학년, SW+데이터 교차점 관심
- **How:** 방산 DS → MS 백엔드 → 스타트업 (2,000 유저)
- **What:** Nest = 데이터+SWE 블렌드, 스타트업+빅테크 최적 조합
- **맞춤형:** "Google 안의 자율적 소기업" 정확히 겨냥

"왜 데이터사이언스를 선택했나?" 질문 대응법

- 자기소개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
- 비전통적 배경 출신이라면 특히 중요함

상황	전략
전공 전환자	"직접 커리어를 바꾼 적극성"을 강조함
비전공자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로 빠른 학습 능력 증명
인접 분야 출신	"이전 직무의 DS 인접 스킬"을 자연스럽게 연결

- DS는 모델링만이 아님 — 이전 직무에서 데이터 관련 스킬을 반드시 갖고 있음
- 새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 — 추가적인 도메인 전문성 + 신선한 관점

PART 4

"그때를 말해보세요" 유형 질문

가장 흔한 "Tell Me About a Time" 질문 5선

#	질문	평가하는 역량
1	좌절/실패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회복탄력성, 성장 마인드셋
2	어려운 동료와 일해야 했을 때 어떻게 관리했는가?	갈등 해결, 대인 관계
3	인기 없는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 어떻게 실행했는가?	리더십, 설득력
4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는? 왜 의미 있었는가?	동기 부여, 가치관
5	큰 마감을 놓쳤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	책임감, 위기 관리

데이터사이언티스트 특화 질문 5선

#	질문	핵심 포인트
1	데이터가 비즈니스 결정을 이끈 경험	비즈니스 임팩트 강조
2	분석 결과가 예상과 전혀 달랐던 경험	비판적 사고, 유연성
3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경험	불확실성 속 판단력
4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경험	과학적 사고, 호기심
5	PM이나 엔지니어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험	협업, 커뮤니케이션

- 일반 행동 질문의 데이터 버전 — 같은 STAR 공식으로 답변 가능

PART 5

STAR 공식 — 이야기로 답변하기

STAR 공식의 4단계

S: Situation

구체적인 도전 상황을 설명함
(나/팀/회사/고객이 직면한 문제
또는 기회)

T: Task

달성해야 했던 목표를 명시함
(프로젝트 또는 과제)

A: Action

"내가" 한 일을 설명함 (팀이 아
닌 1인칭). 구체적 행동 단계를
서술함

R: Result

행동의 결과를 설명함. 성과 지
표가 있으면 포함. **실패해도 배
운 점을 강조하면 됨**

STAR 답변의 핵심 원칙

- 즉석 답변 금지 — "즉흥처럼 보이는 완벽한 답변"은 충분한 준비에서 나옴
- **사실(Fact)이 아니라 이야기(Story)**를 준비할 것
- JD 키워드 + 회사 가치를 스토리에 엮기
 - Position Fit과 Culture Fit을 동시에 충족시킴
- 2분 이내로 답변 — 타이머로 연습함
- 거울 앞에서 소리 내어 연습 — 비언어적 스킬도 중요함
- 실패 스토리도 OK — "투명성과 명확한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다" 등으로 마무리

Amazon DS 면접 — STAR 적용 실전 예시 (배경)

지원 역할: AWS Product Analytics 팀 데이터사이언티스트

JD 핵심 키워드:

- AWS EC2 Product 팀의 **장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
- **스타트업 마인드셋** — "AWS는 고성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업부"
- "기술적 니즈와 비즈니스 니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 "비기술 청중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독립적으로 이슈를 해결"

면접 질문: "현상유지(status quo)에 만족하지 않았던 경험을 말해보세요."

Amazon DS 면접 — STAR 답변 전개

• S: Situation

Facebook Growth Team에서 신규 유저 리텐션 담당. 2018년 Instagram Stories 성공과 Snapchat 위협으로 Facebook Stories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으나, 이것이 신규 유저에게 **해롭다는** 직감이 있었음

• T: Task

신규 유저가 Facebook Storie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이 기능이 신규 유저 리텐션에 도움/해가 되는지 검증하는 것

• A: Action

3주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신규 유저 관련 **다수의 버그와 UX 갭**을 발견. 작은 버그는 직접 수정, 큰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는 Facebook Stories 팀과 New Person Experience 팀에 **프레젠테이션**

• R: Result

신규 유저 리텐션 X% 상승, Stories 사용량 Y% 증가. **Stories 제품 로드맵이 변경**되어 다음 분기 유저 온보딩 기능이 우선순위로 채택됨

이 답변이 효과적인 이유 (분석)

JD 요구사항	답변에서 드러난 부분
장기 로드맵에 영향	Stories 팀의 다음 분기 로드맵을 변경시킴
스타트업 마인드셋	현상유지에 도전하여 독립적으로 문제를 찾아냄
기술+비즈니스 균형	데이터 분석(기술) → 제품 방향 변경(비즈니스) 연결
비기술 청중에게 전달	여러 팀에 인사이트를 프레젠테이션

- Amazon의 Customer Obsession 원칙과도 정렬됨
 - "신규 유저를 위해 현상유지에 도전한 열정"
- 자신감 투사: "비즈니스 전공 2학년의 CEO 자신감" (= Big Data Energy)

PART 6

프로젝트 워크스루 질문

프로젝트 워크스루 — "Tell Me About a Time"의 역방향

- "상황을 말해보세요" 대신 특정 프로젝트를 골라 깊이 파고드는 질문 형식
- 이력서 글머리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실력을 검증함
- 후속 질문이 이어지며, 기술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

"Tell Me About a Time"에서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에피소드를 꺼내지만, 프로젝트 워크스루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동일 유형의 질문이 나옴

프로젝트 워크스루 7대 질문 패턴

#	질문	준비 포인트
1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정제했는가? 해석 이슈는?	ETL 파이프라인, 데이터 품질
2	어떤 모델/기법을 선택했는가? 왜?	의사결정 과정, 대안 비교
3	프로젝트 성공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기준선은?	평가 지표, A/B 테스트
4	최종 솔루션을 배포했는가? 어떤 도전이 있었는가?	실제 운영 경험, MLOps
5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와 해결 과정은?	문제해결력, 끈기
6	이해관계자/팀원과 어떻게 협업했는가? 갈등은?	소통, 갈등 해결

프로젝트 워크스루 대비 전략

-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7대 질문의 답변을 미리 준비함
- 각 답변에도 STAR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음
- 특히 중요한 질문:
 - "다시 한다면?" — 겸손함과 학습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회
 - "어떤 모델을 선택했고 왜?" — 단순 구현이 아닌 사고 과정이 핵심
-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도 동일한 깊이로 준비해야 함
 - 업무 경험이 적을수록 프로젝트의 비중이 커짐

PART 7

면접관에게 할 전략적 질문

"질문 있으신가요?" — 흔한 실수와 올바른 마인드셋

- "특별히 없습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답변
- 연봉, 휴가 일수 질문 — 오퍼를 받기 전에는 부적절

기존 통념	저자의 관점
"이 시간에 회사를 역면접하라"	아직 셀링 모드 — 오퍼를 받기 전까지 적합성을 증명해야 함
"역할 성장 궤적을 물어라"	역할 질문은 오퍼 이후에 하는 게 더 효과적
"자유롭게 궁금한 걸 물어라"	전략적 질문으로 회사 관심도와 리서치를 어필해야 함

- 면접관당 최소 3개의 스마트한 질문을 사전 준비할 것
- LinkedIn에서 면접관 프로필을 미리 확인하면 개인 맞춤형 질문이 가능함

면접관에게 할 수 있는 6가지 효과적인 질문

1. 커리어 스토리

"이 역할/회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2. 흥미로운 프로젝트

"지금까지 작업하신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3. 성장 기회

"회사/제품의 가장 흥미진진한 기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4. 비즈니스 도전

"비즈니스가 직면한 가장 큰 3가지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5. 역할의 난이도

"이 역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가치관 실천

"회사 가치가 일상 업무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역질문의 숨은 전략

-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좋아함 — 면접관의 개인 경험을 묻는 질문이 가장 효과적
- 회사 리서치를 어필하는 질문: 제품 분석에서 나온 궁금증을 질문화
 - "X 기능의 설계 결정 배경이 궁금합니다"
 - "Y 제품의 다음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 역할 자체보다 회사/미션/가치에 대한 질문을 우선시
 - 역할 질문(성장 궤적, 성공 기준 등)은 오퍼 확보 후가 더 유리함
- 이 시간은 "지적 호기심 충족"과 "적합성 어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

PART 8

면접 후 에티켓

감사 메일 — 면접은 끝나지 않았음

- 면접 후 수 시간 이내에 감사 이메일을 보냄
- 목적:
 - 이름과 역량을 기억에 새기기
 - 직무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증명
 -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화

포함해야 할 내용	예시
면접 중 연결된 구체적 주제 언급	"X에 대해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관심과 감사 표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후속 포인트	"말씀하신 Y에 대해 더 생각해봤습니다"

- 면접관이 "어떤 지원자였더라?" 할 때 이름을 보고 대화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

PART 9

행동면접 종합 전략

행동면접 준비 체크리스트 (7단계)

- ① 회사 리서치: 미션, 가치관, 리더십 원칙, 최근 뉴스를 철저히 조사함
- ② 자기소개 작성: Who/How/What 3단계 구조로 1-2분 피치 완성함
- ③ STAR 스토리 5-7개 준비: 주요 행동면접 질문별로 이야기를 작성함
- ④ JD 키워드 엮기: 스토리에 직무 기술서와 회사 가치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삽입함
- ⑤ 프로젝트 워크스루 연습: 이력서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7대 질문 답변 준비함
- ⑥ 역질문 준비: 면접관당 최소 3개의 전략적 질문을 사전 작성함
- ⑦ 소리 내어 반복 연습: 거울 앞에서, 타이머를 켜고, 2분 이내로 답변함

핵심 메시지

마인드셋

- 행동면접은 "부드러운 잡담"이 아니라 ****합격의 10%**를 좌우하는 평가임**
- 기술력이 부족한 주니어일수록 **행동면접이 차별화 포인트가 됨**
- 셀든 쿠퍼도 준비하면 통과함 —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준비의 깊이**가 핵심
- 모든 면접 순간이 평가 대상 — "편한 대화"도 방심하면 안 됨

실전 팁

- 자기소개는 **반드시 지원 회사에 맞춤** — 범용 피치는 효과가 약함
- STAR는 "사실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 감정과 맥락이 있어야 함
- 실패 이야기도 "배운 점"으로 마무리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증명함
- 감사 메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몇 시간 안에 보냄

요약 — Ch4 한눈에 보기

주제	핵심 한줄
행동면접의 중요성	기술의 90% + 행동의 10% = 최종 합격
평가 영역	Soft Skills + Position Fit + Culture Fit
자기소개	Who → How → What, 1-2분, 회사 맞춤형
Tell Me About a Time	준비된 STAR 스토리로 "즉흥처럼" 답변
STAR 공식	Situation → Task → Action → Result
프로젝트 워크스루	이력서 프로젝트 하나를 깊이 파고드는 질문
역질문	면접관 개인 경험 + 회사 리서치 기반 질문
면접 후	수 시간 내 감사 메일 — 구체적 대화 언급